

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PD수첩〉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방송을 중심으로 Narrative Analysis of a TV Documentary o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ever: Focus on the Coverage of 〈PD Notebook〉

심우진, 신동일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Woo Jin Shim(shim@cau.ac.kr), Dongil Shin(shin@ca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 방영된 <PD수첩> ‘조기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Chatman(2003)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통합체 분석을 위해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의 내용 흐름을 탐색하고,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에 잠재되어 있는 이항대립 구조를 분석했다. 해당 방송은 ‘균형-혼란-재균형’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영어 몰입교육 금지에 따른 혼란의 상황이 영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켰으며, 학생들의 영어학습이 점점 앞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시켰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을 유발했다는 정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로 위치화된 학생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 채,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과 영어 몰입교육의 행위를 유발하는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잠재울 해결안으로 정서적 단면, 교수 방법적 차이 등을 다루면서 보다 중층적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다.

■ 중심어 : | 조기 영어교육 | 다큐멘터리 | 서사분석 | 통합체 분석 | 계열체 분석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V documentary titled <PD Notebook> o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hrough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Chatman, 2003). It performed syntagmatic analysis to clarify the story structure with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events, and paradigma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semantic structure hidden in the text by binary opposition analysis. The documentary was constructed in the frame of ‘balance-confusion-rebalance’, and it was explicitly delivered that the English immersion education prohibited in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s has stimulated the market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However, the government’s and students’ voices were missing, and the group of parents, private elementary school officials, and people involved in private English institutes played as main agents to lead the discourse of English immersion and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in the documentary.

■ keyword : |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 Current-Affairs Documentaries | Narrative Analysis | Syntagmatic Analysis | Paradigmatic Analysis |

I. 서론

2013년 10월 7일 날짜로 교육부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시켰을 때 학교 측은 특성화교육, 방과 후 수업의 이름으로 유사 조기영어교육을 여전히 진행시켰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에 의존하거나 조기유학이나 영어연수 기회를 주목했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중요한 경쟁적 도구라는 담론의 생성을 주도한 국내 미디어는 세계화와 영어사용의 필요성을 빈번하게 언급하면서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담론 역시 성공적으로 구축시켰다[1].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대중적 담론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내용이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 편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미디어는 흔히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놓고 서사(narrative)를 제공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에 관한 인식들에 영향을 끼친다. 이중에서도 ‘진실의 장르(genre of truth)’라고 불리는 시사다큐프로그램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취재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송 내용을 사실적인 정보로 수용하곤 한다. 게다가 TV와 같은 다감각적 매체는 사건, 상황, 대상, 인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시청자들은 부여된 의미의 소비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시사다큐프로그램을 통한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은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2].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시사다큐프로그램의 서사적 개입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3년 11월에 보도된 <PD수첩> ‘조기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의 구성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3년 10월에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된 후 한 달 뒤에 방송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대응, 학부모들의 의견 등이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미디어의 개입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체분석(syntagmatic analysis)과 계열체 분석(paradigmatic analysis)을 시도했다. 통합체 분석에서는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

는가?’를 밝히기 위해 통시적 속성을 분석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계열체 분석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인물들의 역할과 텍스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핵심가치로 드러나고 있는 이항대립구조를 분석했다.

II. 선행연구

1. 조기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정의와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7세 이전의 영어교육, 혹은 언어심리학적인 구분으로 성인과 구분되는 언어사춘기(2-12세)의 시기에 이뤄지는 영어교육으로 조기영어교육의 시점을 각기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기’의 의미를 생리학적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목표언어를 학습할 때 결정적인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언어습득이 어려워진다는 결정적 시기론(critical period theory)[3]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처음 실시된 1997년 이후로 한국사회는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유지시켰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교육과정도 새롭게 모색되었다. 초기에는 조기영어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수사나,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정보의 80%, 라디오에서 60%, 전화통화 및 업무에서 85%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영어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 등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영어 교육과정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고 심지어 공교육에서 초등영어교육의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공교육에서 원어민 교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학습시간마저 부족하니 사교육으로부터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보충학습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며,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교육의 모양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까지 자녀의 영어교육에 직접 개입하여 지도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개입이 학습효과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등장했다.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여시키는 조기 영어교육의 페다고지는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반면 왜 조기교육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20여 년 동안 별 다른 논점이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조기영어교육을 국제화 시대의 생존도구, 진학이나 시험을 위한, 혹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헌은 빈번히 등장한다. 이윤영, 최호성[4]은 국제화시대에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영어를 배워야 하며, 상급학교 진학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이나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한 사회 진출 수단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일찍 영어를 배울수록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학부모들은 믿고 있다. 김정오, 허만임, 김혜정[5]의 연구에서는 영어가 미래에 꼭 필요한 언어가 될 것이고, 국제화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선행 영어학습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시대 풍조를 소개했다. TV를 포함한 미디어 매체는 이와 같은 논점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편이라[1] 추가언어 사용의 기회를 통한 타자의 배려, 세계시민으로 의식화[6], 생태적 언어환경의 이헤나 생태적 언어사용자로서의 성장[7], 정체성의 변화를 위한 언어학습[8] 등과 같은 대안적/생태적 담론은 거의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 연구도 있지만, 비판적인 논점도 학계에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우남희[9]는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4세와 7세 아동의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고, 신동주[10]는 조기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어능력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조기영어교육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심지어 과잉학습장애, 난폭한 행동, 자폐증, 책 거부증, 사회성 결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11].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교재, 교사의 자질부족,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모국어

학습에 관한 동기 저하[12] 등이 보고되고 있다. 김태영, 이희진[13]은 조기영어교육 연구의 상당수가 정량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마저도 교수학습법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조기영어교육의 필요나 사회현상은 신문, 방송 뉴스,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편이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 중에서도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있는 기술적 코드, 혹은 재현적 관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2.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서사는 사건을 재현하거나 상황을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매체와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의미전달 형식이며, 흔히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사이론은 1920년대에 러시아의 형식주의 비평가들에 의해 토대가 확립되고, 그 후에 바르트(Barthes), 쥘레(Genette), 토도로프(Todorov) 등의 프랑스 학자들이 서사이론의 개념과 분석 절차를 확장시켰다[15]. 서사이론은 비평적인 분석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서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매체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다[24].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사이론은 TV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 기반의 서사연구에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서사분석은 연극,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 게임, 대중강연, 선거전략, 경영관리, 치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거의 모든 층위에서 서사물이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TV 매체를 서사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현상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 의미부여 혹은 의미공유가 TV의 의미화 실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시청자(수용자)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2].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을 다룬 미디어 매체 중에서도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적 개입을 주목하고자 한다. 시사다큐멘터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며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는 대신에 원인-결과의 논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서사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으며[14], 제작자의 의도와 현실에 대한 주제의식을 고려하여 큰 폭으로 편집이 되기도 한다[15]. 다시 말해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재해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시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관습에 따라 '재구성' 또는 '재현된' 현실이다. 이것은 제작자의 의도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사실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사다큐멘터리는 사건 중심(event-oriented)보다 방식보다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상황 중심(situation-oriented)보다 방식을 취하고 있다[14]. 방송에서 다루고자하는 사건의 주제를 있는 그대로 나열하면서 보도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보도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제작자의 가치와 해석을 개입시켜 그 이면에 마치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려준다는 식의 보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중에 보도된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다큐멘터리를 편집한 제작자의 가치와 해석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시사다큐멘터리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서사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때로는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드러내거나 과장하여 편집함으로써 방송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시사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의견, 해결, 원인과 책임에 관한 소재를 다루지 않을 수 없지만, 관찰자적 관점보다 해설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해 편향적인 해석을 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사다큐멘터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정성이나 보도방식을 다루기도 하지만[16], 표현기법이나 양식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다룬 연구[17]도 있다. 이 중에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성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훈[16]은 쓰나미에 관해 다룬 MBC 다큐멘터리 <시사매거진 2580>, 미국 CBS의 <60 Minutes>의 서사구조를 분석했다. CBS의 <60 Minutes>은 영웅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오는 미군들을 주목하면서 영웅들의 일대

기를 다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선정적이면서 장면 전환이 빠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김지영[15]은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된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를 비교하면서 한국 방송이 주로 개인의 역경, 극복, 성공의 서사에 의미를 집중하고 있고 국가의 실수나 문제점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주[17]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룬 KBS 환경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과 시사다큐멘터리 KBS <추적 60분>의 각기 다른 서사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추적 60분>은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모두 다루고 있는 반면에, <환경스페셜>은 환경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주목하며 서사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수정[1]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된 '영어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 12편의 서사구조를 분석했으며 2008년 이전의 영어열풍은 조기영어교육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영어가 생존의 문제나 국가경쟁력의 수단이라는 담론이 재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사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전달하는 이미지와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진실'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그로 인한 대중담론의 영향력도 무시하긴 힘들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1월 12일에 방영된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PD수첩> 976회 '조기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방송물은 MBC <PD수첩> 홈페이지[18]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다.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른 다큐멘터리도 있었지만 본 방송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교육부가 2013년 10월에 공교육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킨 직후에 상영되었고 당시 조기영어교육을 둘러싼 시대풍조와 교육주체간의 이견이 잘 반영되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개입하고, 학교가 반발하고, 학부모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당시 사

회상을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송이 어떤 서사로 재구성하고 있는지 주목했다. <PD수첩>은 사건 사고나 현안을 취재하는 탐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탐사와 심층취재로 구성된 시사프로그램이다. 약 50여분 동안 하나의 주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방송내용의 주제일관성이 돋보이는 편이며, 시사다큐멘터리의 특징인 사건 해설과 해결 방안의 제시가 분명하고, 이와 함께 서사적 구조 역시 선명하게 계속시킨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976회의 방송은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이 금지 되면서 발생한 학부모들의 혼란을 심층 취재한 내용이다.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들의 2014학년도 입학설명회에 대한 밀착취재와 사립초등학교의 몰입교육 실태,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대한 사립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속내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내세우는 영어전문학원의 세일즈 전략과, 3~4세부터 아이들을 영어학원에 데려가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학부모들이 조기영어에 관한 사교육을 과도하게 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나 사례, 영어 공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핀란드의 영어교육 현장의 모습도 등장했다.

2. 분석방법

미디어 매체에서 조기영어교육이 어떤 의미로 재현되고 있으며, 어떤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나 문학 분야에서 연구되던 서사학은 1970년대 이후부터 미디어 분석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으며[16], 국내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장르를 대상으로 서사분석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뉴스 역시 인물의 일련의 행동과 사건이 등장하는 서사적 구성물[19][20]로 보고 백선기[21]는 KBS <9시 뉴스>의 9.11테러 보도를 서사구조 측면에서 분석했고, 한승백[22]은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이규혁 선수에 관한 신문사의 보도 기사를 서사구조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외에도 영국일간지 <The Times>에 등장한 한국에 관한 기사[23], TV 오디션 방송[24]이 서사분석으로 시도되었다. 나미수,

진오열[14]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KBS <추적 60분>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Chatman[25]의 모형을 본 연구의 다큐멘터리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Chatman[25]은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과 사물의 요소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며(p. 21), 서사에 등장하는 이야기 내용은 단순하게 발생한 사건들의 요소가 고립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가지거나 확인가능한 유기적 조직체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모형은 소설과 영화의 서사성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서사 이론들을 통합하여 재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TV 서사물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26]. Chatman[25]의 서사분석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는 서술방식, 즉 '담화'로 구분하고 있다(p. 19). 이야기는 사건들의 내용에 해당되며, 담화는 그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인 형식이다. 이야기는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사건들로 사건적 요소(행위, 사건의 도입과 복잡성)와 사물적 요소(등장인물, 배경)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이야기의 분석은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장인물의 유형, 인물들 간의 관계, 사건의 전개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시 선택된 요소들과 관련한 계열체적 분석과 사건의 전개에 대한 통합체적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pp. 34-38).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의 특징은 다음 [표 1]에 간단하게 정리했다.

표 1.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
기호의 배열	기호의 집합
계열체로부터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를 구성해 내는 기호들의 조합	메시지가 구성되는 의미 있는 단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통시적(diachronic)	공시적(synchronic)
사건들이 전개되는 순서에 의해 의미 생성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대칭에 의해 의미 생성

위의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통합체 분석은 기호의 배열을 분석하는 것이고, 계열체 분석은 기호의 집합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통합체 분석이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밝히는 통시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계열체 분석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기호들의 조합을 분석하여 숨어 있는 대립적 개념들을 찾아내는 공시적 분석을 의미한다.

모든 텍스트는 사건 전개 순서에 따른 통합체 구조와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대칭에 의한 계열체 구조를 가진 채 의미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계열체적 차원으로 서사는 인물과 배경을 포함하고, 통합체적 차원은 사건들의 관련성, 인과관계를 포함한다. 통합체적 분석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 기승전결 등 사건의 배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계열체적 분석에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대립적 개념들을 찾아내고 공시적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IV. 분석 및 결과

1. 통합체 분석

본 시사다큐멘터리의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이 방송국 웹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이 금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청와대 웹사이트 게시판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어 몰입교육을 권장했던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을 정부가 금지시키는 것이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제작자는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들의 2014년도 입학설명회를 밀착 취재하면서 사립초등학교의 몰입교육 실태,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대한 사립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속내를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PD수첩> 976회는 2013년 11월 12일에 방송되어 3.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교육부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그 직후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인터뷰로부터 방송이 시작된다. 2008년 이후 영어교

육에 대한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1],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영어몰입교육’에 관한 공교육 정책을 발표한지 약 5년 만에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된 셈인데 이 때 학교 측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혹은 조기영어교육 열풍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분석하고 서사구조를 밝힐 수 있는 통합체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2]에서 <PD수첩> 976회의 이야기 전개를 정리하였다.

표 2. <PD수첩> 976회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의 통합체 분석

배경 (오프닝)	# 2013년 11월 7일, 2014 대입 수능시험장 앞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능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많이 집중한 과목에 대한 질문. 모두 '영어' 라고 답변
전개 방식	실태 # 여러 사립초등학교 입학설명회 현장 '영어 몰입교육 금지' 로 인해 각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 '몰입교육' 이란 말 대신 '특성화 교육', '방과후 수업' 으로 명칭을 변경한 채 운영
	원인 # 학생의 영어학습(과외) 모습 영어를 못 하면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취업을 하기 어려우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영어를 반드시 잘 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
	문제 사교육을 못 하게 하려고 몰입교육을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영어몰입교육 금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
	부작용 #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현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유치원을 67.2%가 경험했다는 조사 소개 영유아 전문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에 가면 경쟁이 심해지니 더 빨리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 00백화점 문화센터에서 12-35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 영어를 일찍 배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창의력 등 인지능력을 조사해 보니 지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영어를 일찍 배운 아이들의 창의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전문가 의견
결론 (클로징)	해결 1 # 핀란드의 시장(market)과 초등학교의 모습 해외의 사례 제시. 핀란드의 학교수업, 학부모 역할, 학습방법 등을 성공적인 영어교육으로 소개 등
	해결 2 # 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영어 연극 수업 국내(경기도 안양) 영어수업에서 우수 사례 소개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의 전개방식을 기-승-전-결의 구조로 본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오프닝(기)으로 시작하여, 영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

는지 그리고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교육으로 시작하는 영어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며(승),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탐색한 후에(전), 해결책으로 국내외 사례를 제공하는(결) 순서로 내용이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사다큐멘터리가 갖는 '문제제기-해결모색-문제해결-안정'의 전형적인 전개방식[1]과 유사한 편이지만 핀란드와 국내 우수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할 뿐 해결방안에 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에 대한 탐사를 유도하고 있는 전개방식도 가지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본 다큐멘터리는 '균형-혼란-재균형'의 서사 구조[27]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을 혼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균형은 그와 같은 사회 현상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균형은 영어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편향적이지 않은 채 운영되는 상황이며 혼란은 영어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상황인 셈이다. 영어 몰입교육을 시행해 오던 초등학교는 '특성화 교육', '방과 후 수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실질적으로는 몰입교육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사교육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도 혼란의 모습이다. 이런 혼란의 상황을 해결하고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핀란드와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 수업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영어교육이 몰입교육 금지라는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해 국내외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서사적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균형-혼란-재균형'의 구조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방송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1 영어 몰입교육 금지에 관한 논란

2013년 10월 7일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킨다. 그렇지만 서울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영어 몰입교육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 내용으로 나타났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이었고, 학부모들은 그러한 편법에도 관심을 가졌다. 학부모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방송의 이야기 구성에서 쉽게 전제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이와 같은 관심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영어몰입수업이 편법인 이유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2학년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그 외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면서 검인정 외에 외국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조치했다. 그러자 청와대 게시판에 “지난 몇 년간 영어 몰입교육을 권장했던 정부의 이번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쇄도했고,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다”라며 항의했다. 이 장면에서는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여 주며 마치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영어교육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듯한 인상을 남기며, 학부모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한다고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의 금지는 사립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에 비해 자율성이 적기 때문에 영어 몰입교육의 금지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관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렵고, 결국 방과 후에 개인 과외를 해야 한다는 장면이 나온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인터뷰에서 “영어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영어를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잠도 못 자는 날도 있다”, “유전공학자가 꿈이지만 과학책보다 영어책을 더 많이 봐야 한다” 등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마치 공립학교 학생들이 영어 몰입교육 금지안의 피해자와 같다는 인상을 남긴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인터뷰에서 “영어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취재진이 영어를 안 시키면 안 되냐는 질문에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영어를 못 하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하며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고, ‘영어실력=대학입학’이라는 시대풍조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과 근거 자료로 초반 방송분량을 주로 구성했으며 학부모의 응답이 서술의 골격 역할을 맡고 있고 학생 반응이나 관련 근거자료가 도움정보를 추가하고 있었다. 영어 몰입교육의 금지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학부모와 교육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만 보여주고 있고, 정량적 자료를 내용의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서울의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영어수업이 223.5시간이며 이는 공립초등학교의 56시간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 학부모들은 영어지도사 자격증까지 직접 취득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열의를 보이는 점도 언급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영어 몰입교육 금지로부터 발생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방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2학년 영어수업 금지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되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커졌으며 결국 가정경제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논리가 드러났다.

1.2 영어 사교육 시장, 그 광풍의 현장

자녀를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시킨 학부모의 인터뷰에서 “영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사교육을 하라는 얘기다”,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방송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불만이며 사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부연한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컨설턴트와도 인터뷰를 해서 조기영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일종의 신화’ 같은 것이며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집착한다는 내용도 방송에 담았다. 사교육 현장취재를 통해, ‘미국교과서’를 수입해서 사용하면서, 미국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흉내 낸, 영어로만 수업하는 몰입교육의 사례도 보여주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길거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영어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교육을 받

은 학생 비율이 67.2%라고 보고되었다. 방송에서는 영어를 선행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 후에 수준이 낮은 반으로 배치되며 영어실력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열반으로 배치된다는 풍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능력이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영어부터, 혹은 영어만이라도 제대로 조기교육시켜야 하는 열의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관계자들은 빠르면 18개월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야 하며 “3살이면 이미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이고,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나이”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내세우는 영어전문학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단지 ‘빠르면 좋다’, ‘00살이 가장 영어를 배우기 좋은 나이’와 같은 근거도 애매한 인지발달 기반의 학습시기설만 강조하고 있었다. 좋은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선행학습을 하는 영·유아들까지 있다고 소개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은 블루오션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사교육 열풍의 이유로 사립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미국 교과서의 난이도를 다루기도 했다. 해당 교과서의 수준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고등학생이 학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교재내용을 따라갈 수 없음을 설명했다.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단어를 초등학교에서 학습되고 있는 점을 환기시켰고,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미국 학교의 학습 진도보다 1-5년 정도 일찍 배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보충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실태를 보여주었지만 방송 내용은 사실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와 서울 강남권의 대형 영어전문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마치 전국적인 상황으로 대입시켜 국내 영어교육의 위기처럼 다급하게 내용전개를 시키고 있다.

1.3 조기 영어교육에 망가지는 아이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장면은 매

우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르면 18개월부터, 대개 3살 때부터 시작하는 조기 영어교육을 다루면서 언어와 인지발달의 상관성을 주로 다루었다. 뇌과학연구소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시기에 조기 영어학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했다. 영·유아시기에 감정과 본능 학습이 중요하며 (언어)지식 학습은 뇌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조기 영어교육의 부작용으로 우울증, 야뇨증, 빈뇨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영어 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는 기사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영·유아 영어교육이 단순한 사교육 증가의 문제가 아닌 인지발달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창의력 학습에도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영어학습 경험이 없는 집단, 조금씩 영어를 배우는 집단, 종일제로 영어를 배우는 집단을 나누어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했더니 영어학습 경험이 없는 집단이 창의력이 가장 높았고, 종일제로 영어를 학습한 학생 집단의 창의력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이처럼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사립초등학교의 편법적인 수업운용, 수업에서 사용되는 미국 교과서의 난이도 문제 등으로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는 논점은 개인의 인지발달 또는 정서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조기 영어교육은 영어학습의 과열을 유도하고 결국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에 집중하지 못하며 다양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린 학습자들의 정신적 건강, 인지적 발달,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지해 요소가 된다는 논점이 등장한 것이다. 해설자(나레이터)는 "영어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 조기 영어교육의 대안은 없는가?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핀란드와 국내 사례를 방송 마지막 부분에 할애했다. 국민의 70%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핀란드를 소개하면서 현장 증거로 핀란드 지역에서 상인들이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며 물건을 매매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교육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영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헬싱키 소재 초등학교의 수업현장도 보여주고 교사 인터뷰 장면도 보여준다. 수업이라기보다 놀이와 같은 교육현장, 사교육 뿐 아니라, 고부담시험의 압박도 없는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공부하는지 소개되었다.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공립초등학교의 4학년 영어연극 수업이 제시되었다. 영어연극 대회도 개최될 뿐 아니라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내용 발굴에 신경을 쓰는 학교 입장을 전했다. 핀란드의 사례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교육현장으로 소개되었지만 국내 사례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도 누구든지 재미가 있는, 사교육은 없는, 조기영어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다만 국내 사례를 언급할 때 고부담시험, 진학, 취업과 같은 사회구조가 영어답론과 묶이지 않았고, 방송 분량에서도 핀란드 사례는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으로 논거를 구성하지만, 국내 사례에서는 학생과 교사만 등장시켰다. 방송의 끝부분에서는 수능시험장의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영어가 중요한 수능과목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유아 영어학습 자까지 겨냥한 사교육 열기를 식히지 못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 교육단체의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서울 지역 주요 10개 대학을 조사해보니 영어시험(TOEIC, TOEFL, TEPS 등)점수가 높은 학생을 주목하면서 선발하는 입시전형이 수시 모집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영어의 절대적인 권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입시제도의 책임 역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2. 계열체 분석

계열체 분석에서는 서사적 구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서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누구이며 그들끼리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행위에 근거가 되는 이항대립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다큐멘터리의 핵심 등장인물

은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 교육전문가, 뇌과학 전문가이다.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는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에 대한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행위자 위치성을 갖고 있다. 교육전문가와 뇌과학 전문가는 행위자들이 유발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생은 시종일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는 등장하지만, 영어 몰입교육 금지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책임자나 원인 제공자의 역할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배경으로 등장한 사례를 제외하고 학생이 피해자로서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장면은 거의 없다.

등장인물이 다루고 있는 가치들을 이항대립의 계열체 분석으로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라는 이항대립 속에서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심층가치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항대립은 ‘정부와 국민’이라는 심층가치로 구현되고 있었다. 다음 [표 3]에 그와 같은 이항대립의 요소들을 정리했다.

표 3. <PD수첩> 976회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의 이항대립 구도

이항대립	구체적인 이항대립	심층적 의미
성공과 실패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사회적·경제적인 성공과 실패 ·사립초등학교의 특수성을 이용한 성공의 발판 ·성공을 위한 영어 몰입교육의 시행 여부
	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을 대신할 사교육의 필요 ·영어 몰입교육을 위한 조건 충족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가해자와 피해자	정부와 국민	·영어교육 혜택을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 ·정부의 결정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 ·책임과 비난에 대한 회피

본 방송을 통해 영어실력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영어를 잘하면 대학 진학도 잘 할 수 있고, 대학 진학은 직장의 수준을 결정하면서 영어학습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

공과 실패’의 이항대립에서 드러나는 심층적 의미는 ‘사회·경제적 성공과 실패’이다. ‘성공’은 학부모들의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영어가 중요한 과목이며, “영어만 잘 해도”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획득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실패의 삶이 예상된다는 전제가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의 병폐를 지적하는 방송은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 조기영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실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안긴다. 성공과 실패의 이항대립은 학습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국내외 사례를 보여주면서 영어에 관한 성공의 가치는 ‘적극적 참여’, ‘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학습과 연결된다. 실패의 가치는 우울증, 틱증상, 야뇨증, 빈뇨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뇌 발달 저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가 나열된다.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이항대립 구도도 방송을 통해 드러난다.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학부모 요구의 충족’, ‘영어 몰입교육의 필요성’, ‘방과 후 수업’, ‘특성화 수업’, ‘외국교과서’ 등의 텍스트로 재현되고 있으며, 자녀의 영어학습을 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주목하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미국식 교육방식과 미국 교과서 등을 수용하고 있다는 상황과 결합시켰다. 이에 반해 공립초등학교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았고, 방송에서 근거자료로 보여준 초등학교의 영어시수 비교 등을 통해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사립초등학교에 비해 영어교육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장에서 영어 몰입교육의 시행 내용에 대해 학교 측이 언급한 것은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자극시키고, 공립초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영어 몰입교육을 사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화’를 만드는 셈이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립초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공립초등

학교의 대비는 영어를 통한 '성공'의 심층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켰더니 오히려 사교육이 부추겨지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방송 분량은 사교육과 공교육을 선명하게 이항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을 위해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켰지만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며, 정부 정책은 결국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할 수 없는', '사립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니는', '영어를 안 하면 뒤처지는' 사교육을 팽창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규제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초등학교 정규교과 내 영어 몰입교육', '검인정 외 외국교과서 정규교과 내 사용'과 같은 금지안을 사교육에서는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사교육에서 제공되는 영어 몰입교육과 조기 영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대비되어 있는 등 사교육과 공교육은 성공과 실패라는 가치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항대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이항대립에서 '정부'는 가해자로, '국민(학생과 학부모)'은 피해자로 구분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킨 '잘못된' 정부의 조치로 인해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부모들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부 조치로부터 가계의 경제는 어렵게 되고, 그들은 경쟁으로부터 더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교육정책, 입시제도, 학력차별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 당사자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 방송 어디에서도 몰입교육에 관해 가해자의 위치성을 벗어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남긴 가해자 '정부'는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 영어 몰입교육 금지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고는 책임 소재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교육을 하던, 가정교육을 하던, 조기유학을 보내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성공'이라는 핵심가치 안에서 적극적인 '해결자'의 모습으로도 재현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PD수첩>에서 2013년 11월에 보도한 '조기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의 서사적 특성을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통합체 분석을 통해서 영어 몰입교육 금지로 인한 혼란의 상황이 영어 사교육 광풍과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해결책을 국내의 사례로부터 찾아보는 구도로 방송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계열체 분석에서는 등장인물의 역할과 구체적인 이항대립 구도를 살펴해보았는데, 등장인물은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 교육전문가, 뇌과학 전문가로 볼 수 있었다.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는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과 영어 몰입교육의 행위자로, 교육전문가, 뇌과학 전문가는 이 행위에 대한 평가자 역할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유발시킨 정부는 방송에서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설정된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주로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과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저항하는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행위성의 핵심가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항대립 구도를 통해 재현되고 있었다. '성공과 실패'의 가치 대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이항이 드러나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에서는 '정부와 국민' 즉, '정부와 학생/학부모'의 대립이 드러나 있었다.

본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는 가해자인 정부가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시키면서 사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면서 정신적인 질환마저 겪고 있다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이지만, 막상 '신음하는 아이들'은 방송에서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교육과 사교육,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정부와 학습자를 불필요하게 이항대

립시키고 있으며, 그런 중에 영어에 관한 ‘성공’의 담론은 오히려 부추겨지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의 금지가 조기 영어교육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논리는 단순하며, 연극을 하고 놀이처럼 재미나게 수업하는 모습을 조기 영어교육의 대안으로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조기 영어교육의 교수방법론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담론적 개입, 역사성이나 사회구조적 논의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서사는 그 사회의 관계성이 내포된 문화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서사분석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특정 담론에 대한 생산방식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시사다큐멘터리는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영어교육의 문제만으로 규정하고 재현하지 않고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은 학습방법이나 특정 부모들의 과육 수준으로 보지 않으며 세계화로 인한 영어가 갖는 권력의 문제를 사실상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PD수첩>은 영어학습, 영어사용, 영어능숙도는 사회·경제적 성공, 문화자본 등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영어, 학습, 학교, 교육의 담론은 학습자, 학부모, 교사의 문제가 아니며 전 사회적이면서 다층적인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사회에서 영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언어 또는 교과목 수준 이상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일종의 신화로 작동하고 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시청자들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27]을 내기도 하고, 영어 몰입교육의 금지는 적절하지 않으며,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험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28]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영어담론이 갖는 비밀스러운 구조를 밝히고 해체하는 과정 즉, 탈신비화(demystification of myth)의 과정을 다루진 못했다. 영어에 관한 다양한 매체담론의 생성 현장에 주목하면서 추후 연구자들은 영어를 잘 한다는 사회적 의미, 성공의 기제로 작용하는 구체적인 영어역량의 정체, 영어담론의 생성을 맡고 있는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서사담론의 구성에서 무엇이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가) 배제되고 선택되었는지, 누구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선택되었는지 텍스트-지향의 연구도 요구된다. 본 다큐멘터리처럼 이항대립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모습은 사실상 배제하고, 행위자와 평가자의 역할을 전형화시킨다면, 현상에 대한 인식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정, “영어교육열풍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5호, pp.7-52, 2008.
- [2] 이경숙, “텔레비전 텍스트의 서사 분석 방법,”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컬처북, pp.111-141, 2015.
- [3] W. Penfield and L. Roberts, *Speech and brain mechanisms*, Atheneum, 1959.
- [4] 이윤영, 최호성,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교과교육학연구, 제13권, 제2호, pp.343-368, 2009.
- [5] 김정오, 허만임, 김혜정,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1호, pp.193-197, 2014.
- [6] M. McGroarty, “Home language: Refuge, resistance, resource?,” *Language Teaching*, Vol.45, No.1, pp.89-104, 2012.
- [7] L. van Lier, “From input to affordance: Social-interactive learning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J. P. Lantolf(Ed.), *Sociocultural theor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Recent advances*, pp.245-259, OUP, 2000.
- [8] N. H. Hornberger, “Multilingual language policies and the continua of biliteracy: An ecological approach,” *Language policy*, Vol.1, No.1, pp.27-51, 2002.
- [9] 우남희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4

- 호, pp.453-474, 2007.
- [10] 신동주,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1권, 제2호, pp.349-374, 2007.
- [11] 장영희, “조기특기교육-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 교육개발통권, 제133권, pp.24-39, 2002.
- [12] 김명숙, “조기영어 공교육이 영어학습에 대한 자기결정동기 및 언어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71-96, 2012.
- [13] 김태영, 이희진, “조기영어교육과 초등영어교육의 연구동향: 2000-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3권, 제3호, pp.67-91, 2015.
- [14] 나미수, 전오열, “TV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트렌스젠더’ 주제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4호, pp.89-132, 2006.
- [15] 김지영, “스포츠영웅에 대한 한일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 피겨 여왕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7권, pp.219-251, 2010.
- [16] 심훈,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분석: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CBS의 60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6호, pp.286-313, 2005.
- [17] 최현주,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비교분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KBS의 <환경스페셜>과 <추적60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2호, pp.415-441, 2006.
- [18]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 [19] R. Barthes,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narrative,” In T. Bennet (Ed.), *Culture, ideology and social process: a reader*, Batsford, pp.165-184, 1981.
- [20] M. Gurevitch, M. Levy, and L. Roeh, “The global newsroom: convergences and diversities in the globalization of television news,” In Dahlgren & C.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Routledge, pp.195-212, 1991.
- [21] 백선기, “TV 뉴스 영상 재현의 의미구조 및 이데올로기 구조 - KBS 9시 뉴스의 이라크전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16권, pp.243-309, 2004.
- [22] 한승백, “벤쿠버 동계올림픽 이규혁 보도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3호, pp.221-236, 2010.
- [23] 이윤진, “영국에서의 한국이미지와 스토리텔링/서사의 변화: 2002년-2005년 <The Times>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1호, pp.32-58, 2007.
- [24] 송명진, “서사 전략과 대중문화 콘텐츠 -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와 ‘위대한 탄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권, pp.205-228, 2011.
- [25] S. Chatman, *이야기와 담론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푸른사상, 2003.
- [26]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 [27] T.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Blackwell, 1977.
- [28] <http://appida.tistory.com/667>(2013년 11월 13일)
- [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wojan&logNo=130180203596>(2013년 11월 20일)

저 자 소 개

심 우 진(Woo Jin Shim)

정회원



- 2007년 2월 : 중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수료

<관심분야> : 언어평가, 담론분석, 서사분석, 스토리텔링

신 동 일(Dongil Shin)

정회원



- 1990년 8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95년 8월 : Iowa State Univ 영어학(석사)
- 1999년 10월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언어교육

평가학(박사)

- 2000년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언어사회, 언어평가(정책), 담론분석, 스토리텔링